

신사학과 구사학

The New History and the Old History:
A Christian Critique of the Historiography of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후반의 역사서술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김중락

- I. 신사학과 구사학
- II. 신사학의 발전
- III. 신사학의 변화
- IV. 신사학과 그 변화에 대한 비판



김중락,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서양사)을 수료하고, 경북대학교와
경북신학교에서 강사로 가르치다가 도영하였다. University
of Edingburgh에서 Academic Related Staff으로 1년간
연구한 후 현재,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다.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실행위원(연구회 담당)으로 섬긴바 있
으며, 현재 동역회 영국지부를 섬기고 있다.

Abstract

The 'New History,' based on either economic-demographic determination or economic class determination, has become old. Dramatic changes have taken place in historiography: in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from an emphasis on the structure surrounding them to that on the human beings themselves; in the subject matter, from economics and demographics to anthropology and psychology; and in method, from the analytical to the narrative. Yet Christians should not be too hasty to rejoice, since these trend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relativism which stems from Postmodernism. The new universe discovered by the 'New Historians' is an arena of chaos. Christian historians need a new normative standard for writing history: perspectivism, not relativism.

I. 신사학과 구사학¹⁾

지난 약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문 역사학에서 언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외치는 것이 설교단 밖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 역사가가 자신의 역사관을 실행치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믿는 바를 자신의 역사에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 역사가에게 있어서 신앙과 역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은, 그가 한 그리스도인 역사가는 될 수 있어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며, 역사가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역사가는 원칙에 따라 게임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저명한 그리스도인 사상가 Herbert Butterfield의 말이다. 또 그는 “학문의 영역에서 현미경을 이용해 연구하는 과학자가 식물의 성장과 마름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인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가도 자신의 주장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거나 증인으로 인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²⁾ 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는다 해도, 이것은 문서를 가지고 연구하는 역사가들에게는 숨겨진 주제이다.³⁾ 따라서 신의 자비를 언급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역사서술은 독자들이 기대하는 원칙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⁴⁾

그리스도인 역사가는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역사 기술에서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 사고

1) 이 논문은 University of Cambridge의 교수들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 특히 Selwyn College의 Big Book Club에서 이루어진 논쟁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 둔다. 이 논문에서 참고된 일부 reference들이 번역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본을 사용하게 됨을 알리며, 역자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2) H. Butterfield, *Writings on Christianity and History*, Oxford, 1979, p. 134.

3) Ronald A. Wells, *History through the Eye of Faith*, San Francisco : Harper and Row, 1989, pp. 1-5.

4) David Bebbington, *Patterns in History : A Christian Perspective on Historical Thought*, 2nd ed., Leicester : Apollos, 1990, p. 187.

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만 항상 밖으로 주장하면서 행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 역사가의 주장도 이처럼 명시적이기보다는 묵시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역사가의 설명이 기독교적 시각의 역사 이해와 일치하는 한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⁵⁾ 이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 문학 작품이 기독교적 문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마디의 기독교적 용어가 없다 해도 작가가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적 의미가 기독교적 문학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접근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때로 비기독교인 역사가의 글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역사는 역사를 크리스찬 공동체에 보이기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학자들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쓰는 것이다.

비록 성과 면에서 미미한 것이지만 이런 접근은 이 논문에도 시도되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학도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이 변화는 실로 혁명적이라는 수식어로도 적당치 못할 만큼 큰 변화였다. Thucydides로부터 Macaulay에 이르기까지 2천 년 동안 역사학을 지배해 온 전통사학, 즉 서술식 역사는 제2차 대전 이후 급속히 성장해 온 '신사학'(New History)에 그 주연의 자리를 내놓아야만 했다. 본고는 이 새로운 역사학의 주역인 신사학의 개념과 발전,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성격을 유대·헤브라이즘의 시각으로 비판해 보고자 한 시도이다. 신사학은 새로운 문제제기, 새로운 연구방법 그리고 새로운 연구대상에 관심을 가지며 지금까지 구사학의 영역을 침범해 왔다. 그러나 이 신사학 역시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신사학의 변화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신사학의 개념과 발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사학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사이다. 전통사가들에게 정치란 모든 사람

5) Ibid., p. 188.

의 행동을 강제하는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과거의 연구란 정치에 대한 연구였다. 본질적으로 정치란 한 국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란 국가적 차원의 역사 또는 국가간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적 차원의 역사였다.⁶⁾ 전통사학을 설화적 역사로부터 과학적인 역사로 만든 독일의 대 역사가 Leopold P. Ranke(1795 - 1886)에 있어서도 역사란 정치사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사학은 이러한 전통사학에 반해 정치뿐 아니라 - 그들은 일부러 정치사를 무시해 왔다 - 인간의 행위와 인간 행동을 규정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에 더 관심을 가져왔다. J. B. S. Haldane이 “모든 것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는 신사학의 대명사인 프랑스 아날학파(the Annales Schools)의 슬로건인 ‘전체사’(total history)를 의미한 것이다.⁷⁾

전통사학과 신사학의 관심분야에 대한 차이는 결국 그들이 다루고 있는 대상 인물의 차이를 규정한다. 전통사학이 과거의 정치적·사회적 엘리트들, 즉 왕, 정치인, 장군, 그리고 성직자들을 다루는 ‘위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above)였다면, 신사학은 미천한 사람들, 이름없이 죽어간 사람들, 즉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사람들의 역사인 ‘아래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below)이다.⁸⁾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문서에 의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역사의 전제를 거부한다. 신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류의 사람들은 문서는 커녕 일기나 편지도 남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방법과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 공식문서는 공

6) Peter Burke, ‘Overture: the New History’ in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Writing*, ed., P. Burke, Cambridge : Polity Press, 1991, p. 3.

7) J. B. S. Haldane, *Everything Has a History*, London, 1951. 여기서 사용된 용어 ‘전체사’는 약간 오도적이다. 이는 역사가가 사회의 모든 측면을 역사서술에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가가 선택할 주제의 영역에 한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8) E. P. Thompson, ‘History from Below,’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7. April 1966, pp. 279-80 ; *History from Below: Studies in Popular Protest and Popular Ideology*, ed., Oxford : Frederick Krantz, 1988.

식적 입장만을 보여 주고 사적인 문서는 편견을 가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문서는 다른 증거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어떤 사료는 시각적일 수도 있고, 혹은 청각적일 수도 있다. 특히 이들이 가장 신뢰를 부여하는 자료는 거래, 인구, 투표 등에 관한 수치를 담고 있는 통계학적 자료이다. 이러한 신사학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전통사학이 문헌이 없었던 시기를 선사(先史)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난센스일 뿐이다.⁹⁾

이러한 상이한 사료에 대한 접근은 상이한 역사기술을 초래한다. 전통적 역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식 기술이다. Lawrence Stone에 의하면 ‘서술식 역사’(narrative history)란 “사료를 연대순으로 정돈한 것이며, 일관성 있게 단일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¹⁰⁾ 그러나 신사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보다는 사회구조나 환경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기술이 분석적이다. 따라서 신사학자들의 역사 기술이 복잡한 수치의 그래프와 통계표로 가득차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우아한 역사서술이란 역사가 아니라 이야기에 불과하며, 과학이 아닌 설화에 불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사학은 20세기 전반의 전통사학이 근거로 했던 역사주의(historicism)의 환상에서 벗어났다. 역사주의는 역사에 대한 어떠한 위대한 이론(grand theory), 즉 역사철학을 거부하고, 역사가가 순전히 선입견 없이 사료에 접근할 때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역사가 가능하다는 자기 부정적 역사철학이다. 전통사학의 최고 미덕은 독자에게 객관적인 역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주 인용되는 Ranke의 구절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발견하는 역사학이다. 1902년에 발행한 ‘캠브리지 근대사’(Cambridge Modern History)는 이러한 철학에 근거해 국제적인 협력으로 만들어진 대작이다. 이 ‘캠브리지 근대사’의 편집자 액톤 경(Lord Acton)이 기고자들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은 이러한 역사주의 철학

9) Burke, ‘Overture’, pp. 4-5.

10) L. Stone, ‘The Revival of Narrative: Reflections on a New Old History’, *Past and Present* 85, 1979, p. 3.

을 잘 대표하고 있다. “우리들의 워털루(Waterloo)는 프랑스인과 영국인 그리고 독일인과 화란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¹¹⁾ 오늘날 이러한 이상은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Peter Burke가 주장했듯이 아무리 색깔, 신조, 계급 그리고 성별과 관련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몸부림쳐도 우리는 현재의 특별한 견지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¹²⁾ 그것은 캠브리지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했던 Hebert Butterfield가 말한 ‘역사가의 거울에 비친 영상’에 불과한 것이었다.¹³⁾ 신사학은 이러한 역사주의에 대한 반항이라기보다는 역사주의가 이루지 못한 객관적 역사 또는 과학적인 역사를 다른 방법을 통해 찾고자 한 시도이다. 신사학은 역사가의 편견을 역사서술에서 없애기 위해 가치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로 역사를 기술하는 계량적 방법을 채택한다. 따라서 계량화되지 않은 역사란 과학적 역사가 아닌 것이다.

II. 신사학의 발전

신사학은 2차 대전 후에 급격히 발전한 역사조류이지만 그 이전에도 비록 소수이긴 하나 신사학에 대한 목소리는 들려 왔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신사학’이란 용어는 1912년 미국의 역사학자 James Harvey Robinson에 의해 사용되었다. Robinson에 있어서 신사학이란 ‘보통인간’(common man)의 역사이며 인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학자에 의해 발견된 인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이다.¹⁴⁾ 그의 호소는 정치적 사건과 엘리트 중심의 전통역사에 대한 신선한

11) Acton, *Letter to Contributors to the Cambridge Modern History*. 이 편지는 *Lectures on Modern History*(Acton, 1906)에 수록되어 있다.

12) Burke, ‘Overture’, p. 6.

13) H. Butterfield, *History and Human Relations*, 1951, p. 108.

14) J. H. Robinson, *The New History*, New York, 1912.

도전이었으나, 당시 독일사학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던 미국사학계가 수용하기에는 너무 시대를 앞선 것이었다.

영국에서도 Louis Namier경이 1930년 18세기 영국정치에 내포된 정치사회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Whig적 역사해석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영국사학계도 아직 역사주의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수용될 수 없었으며, Namier 자신도 사회사나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만, 기존의 정치사에 대한 Whig적 해석에 거부 이상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신사학은 아니었다.¹⁵⁾

실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사학은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아날학파의 역사기술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아날학파는 당시 역사학계의 지배적 경향이었던 정치, 외교사에 반대하여, 1929년에 Mark Bloch¹⁶⁾와 Lucien Febvre에 의해서 창간된 역사학술지 「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를 중심으로 하여 탄생한 신사학파이다.

Febvre에 의하면 역사는 모든 부분이 포함된 전체사여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역사가는 문서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남긴 모든 것(언어, 기호, 유물, 제도)을 사료로 이용해야만 한다.¹⁷⁾ Bloch와 Febvre에겐 전통역사관 미사여구, 검증불가능

15) L. Namier, *The Structure of Politics at the Accession of George III*, 2 vols., 1929; *England in the Age of the American Revolution*, 1930. Namier의 구조분석적 서술은 Herbert Butterfield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H. Butterfield, *George III and the Historians*, London, 1957). Namier의 엘리트 중심 역사에 대한 집착 또한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한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심사에서 행한 그의 언급으로부터 알 수 있다.

16) 유대인이었던 Bloch는 나치의 박해에 대항해 프랑스의 레지탕스의 일원으로 활약하다가, 1944년 게슈타포(gestapo)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는 그의 유명한 저서 「역사를 위한 변명」(Apologie pour l'histoire)에서 당시 프랑스 지성인들의 완고성과 소견(narrowness)을 공격하였다.

17) G. Barraclough, *Main Trends of Research in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한 통찰에 근거한 것으로 엄격한 형태의 지식이 아니었다.¹⁸⁾ 그러나 Bloch와 Febvre의 주장과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실제로 아날학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은 Febvre의 뒤를 이어 아날지의 편집인이 된 Fernand Braudel이었다. Braudel의 공헌은 무엇보다 아날학파의 분석구조인 역사 구조의 3단계 - 구조, 국면, 사건 - 를 정교화한 것이다.

아날학파를 다른 신사학파들과 달리 가장 분명히 구분짓게 하는 것은 사회변화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분석이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는 장기 지속적인 구조(structure),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국면(conjunctures), 그리고 단회에 그쳐버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건(events)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후에 이 용어들은 Braudel에 의해 '지리적 시간'(geographical time), '사회적 시간'(social time) 그리고 '개별적 시간'(individual time)으로 표현되었다.¹⁹⁾ 역사가가 한 사회를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격변과 같은 단기적 변화가 아니라, 그러한 단기적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지속적인 사회구조와 그 사회적 구조 내에서 반복적인 주기를 가지면서 단기적인 사건들을 조건지우는 국면을 연구해야 한다.²⁰⁾

우리는 아날학파를 크게 2차 대전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Febvre와 Bloch에 의해 인도되었고 장기 지속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졌다면, 후자는 Braudel과 Emmanuel Le Roy Ladurie에 의해 대표되며 주기적인 반복을 하는 국면에 초점을 두었다. 후일 Le Roy Ladurie에 의해 전자는 '질적 구조의 역사'(qualitative structural history), 후자는 '수량적 국면의 역사'(quantitative history of conjunctures)라 불려졌다.²¹⁾ 장기 지속적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역사가는 지리학, 인구학, 인종학, 기후

History, UNESCO, 1978, p. 36.

18) Ibid., p. 37.

19) Ibid., p. 38(Braudel, 'La Longue duree' in *Ecrits sur l'histoire*, 1969).

20) Ibid., p. 39.

21) Georg G. Iggers, *New Directions in European Historiography*,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4, p. 50.

학, 그리고 식물학의 연수를 응용해야 한다. 특별히 지리학은 Febvre와 Bloch에게 역사학과 동일한 학문이었다.²²⁾ 따라서 이들 구조를 중시하는 역사학자들이 택한 사회의 범주는 역사적이거나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구분이었다. 1949년에 출판된 Braudel의 초기 기념비적인 저작 「필립 2세 시기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가 물리적인 환경인 육지와 바다, 산과 섬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²³⁾ 여기서 Braudel은 지리적 환경이 인간의 삶의 양식을 규정함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장기지속적인 구조에 대한 관심은 제2세대 아날학자들에 의해 국면에 관한 관심으로 대체되었다. 중기적인 변화인 국면에 대한 아날사학의 관심은 주로 경제와 인구 관계에 주어졌다. 중기적 국면의 전환을 발생시키는 것은 식량의 공급과 인구 증감의 상관관계이다. 이들에 의하면 인구의 증가는 식량가격을 폭등하게 하고, 이것은 다시 많은 사람들을 생존의 한계선 상에 있게 하며, 그로 인해 흑사병과 같은 외부적인 조그만 충격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초래한다. 인구감소는 다시 식량가격을 하락시키며, 이는 다시 인구 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가격폭등의 국면, 인구감소와 가격하락의 국면이 갖는 주기적인 변화는 전근대 사회를 분석하는 아날학파의 분석틀이다. Le Roy Ladurie의 「랑그독의 농민들」(Les Paysans du Languedoc)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대표작이다.²⁵⁾

Geoffrey Barraclough가 주지한 바 국면의 역사는 인구변화, 생산과 가격의 변화 등을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 통계표, 그래프로 밝혀지는 수학적 역사이다.²⁶⁾ 1970년대 아날지의 페이지들이 이야기 없는 숫자로

22) Barraclough, p. 40.

23) F. Braudel, *La mediterranee et le monde mediterraneen a l'epoque Philipp II*, Paris, 1949.

24) Burke, 'Overture', p. 9.

25) E. Le Roy Ladurie, *Les Paysans du Languedoc*, Paris, 1966.

26) Barraclough, pp. 39-40.

채워져야만 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Le Roy Ladurie에게는 수량화되지 않은 역사는 과학적 역사가 아니었다.²⁷⁾

이러한 아날학파의 역사서술은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영국의 예를 들자면, Peter Laslett의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The World We Have Lost*)는 이러한 인구사의 대표적 저서이고, 인구사 및 사회구조사를 위한 캠브리지 그룹(*Cambridge Group for the History of Population and Social Structure*)의 탄생은 인구사·가족사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초래하였다. Le Roy Ladurie의 국면에 대한 강조는 영국의 Michael Postan에 의해 영국사 이해에 그대로 적용되었고,²⁸⁾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학자 Robert Brenner에게 공격받았을 때, 이것은 Postan뿐 아니라 Le Roy Ladurie까지 참여하는 '자본주의 이행 논쟁'을 재발시켰다.²⁹⁾

신사학의 다른 한 부류는 미국의 계량사가들(*econometricians or cliometricians*)이다. 그러나 미국의 계량사가들은 프랑스의 아날학자들에 비하면 근본적으로 사회인식의 관점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이들의 특성은 특별한 사회분석들보다는 특이한 연구방법론에 있다.³⁰⁾ 이들은 팀을 이루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컴퓨터로 계산·분석하는 역사가들이며, 계량적 분석만이 진정한 역사라고 주장한다. 복잡한 수학공식과 방대한 컴퓨터 처리물 등으로, 이들의 역사는 일반 독자들은 물론이며 다른 역사가들의 접근도 어렵게 만든다.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나 흑백문제같은 정치적 주제도 이들의 연구대상이었으나 주로 경제사가 그들의 주제였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는 '신 경제사'(*New Economic History*)라 불린다.

전통사학이 Ranke에 의해 대표되는 역사학이라면, 1920년 이후부터 발

27) E. Le Roy Ladurie, *The Territory of the Historian*, trans. B. and S. Reynolds, Hassocks, 1979, p. 15.

28) M. Postan, *The Medieval Society*, Penguin, 1975.

29) 이 논쟁에 대해서는 *Past and Present*(1978) 이후의 과정을 참조할 것.

30) Iggers, p. 186.

전해 온 마르크스주의 역사학도 신사학의 범주에 넣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엘리트, 정치중심의 전통사학에 반기를 들고 대중과 경제로 역사가의 눈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개념과 그 발전을 논할 여유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한 사회의 변동 요인으로서 아날학파가 제시한 인구, 가격변동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시한 계급결정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아날학파를 그들의 최대 적으로 만들었다.³¹⁾

비록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사학은 결국 전통사학과 함께 정통 역사학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것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회과학과의 연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Iggers가 주지하였듯이 신사학은 80년대 초반에서도 사회과학과 연합하여 그 발전을 거듭하였다.³²⁾ 이는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 신사학적 전제와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학술지들이 생겨난 사실에서 분명히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간 신사학과 결별하려는 심각한 움직임이나, 신사학 내에서도 심각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III. 신사학의 변화

최근 일부학자들이 목격한 것처럼 신사학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신사학’이라는 용어에 어울리지 않게 신사학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구사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사학처럼 신사학 역시 그 내부에 철학, 사료, 방법 문제 등의 제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보인다. 가장 먼저 신사학을 변하게 만든 요소는, 신사학이 경제 - 인구의 변화로 사회를 보는 단일원인 결정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다.³³⁾ 복잡한 사회의 제현상을 경제 - 인구의 변화로만 설명하려 했던 것

31) 자본주의 이행논쟁은 이들의 대립을 잘 보여 주고 있다.

32) Iggers, pp. 181-182.

은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사회 현상을 계급 결정론으로 설명하려했던 것이상이 아니다. Stone이 말한 것처럼 문화나 개인의 의지 등도 역사적 변화의 중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이러한 요소가 사회변화, 즉 생산과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하부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³⁴⁾ 예를 들면,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피임에 대한 관행은 인구에 대한 압력이 없는 사회에서도 있어 왔고, 핵가족은 산업화의 산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존재해 온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역시 같은 이유로 변화를 격지 않으면 안되었다. 50·60년 대에 유행하던 이데올로기적 관심이 70년대 이후로 서구 사회에서 쇠퇴한 것도, 결정론적으로 역사를 보려는 시각의 쇠퇴를 종용하였다.

경제 - 인구 결정론에 대한 환멸은 많은 신사학자들을 의식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갑자기 과학적 역사를 주장하던 이들에게 지성, 심리 그리고 문화 등이 역사의 중요한 독립변수로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신사학은 지리학과 경제학 또는 인구통계학과 같은 인간의 자유에 외적제한을 가하는 사회과학에서 떠나 인간의 집단의식, 가치, 그리고 의미 등을 탐구하며 인간을 역사적 상황에서 능동적 인자로 보는 인류학과 기호언어학 등의 학문과 손잡게 만들었다.³⁵⁾

아날학자들의 새로운 관심은 위대한 사상가의 사상에 관심을 둔 전통 지성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이념이나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생각, 시각, 그리고 언어구조들인 인간의 심성(mentalites)에 관심을 두었다. 이들이 Stone의 말처럼 “개인, 한 재판 그리고 한 극적인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으나,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화와 사회에 내적인 작용에 빛을 주기 위한 것이다”.³⁶⁾ George Duby는 부빈전투(Bouvines)라는 한 단일 사건을 통해 전쟁사가 아닌 13세기 초 프랑스 봉건 사회의 사회

33) Stone, pp. 8-9.

34) Ibid., p. 5.

35) Iggers, p. 185.

36) Stone, p. 19.

적, 정신적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Le Roy Ladurie는 그의 저서 「Carnival」에서 1579년과 1580년 사이 남프랑스 지방의 Romans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그 속에 게재되어 있는 문화를 밝혀 보았다.37) 신사학자들이 발견한 심성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이들은 의식, 노래, 축제 등에서 대중문화의 핵심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부조리, 마술, 정신이상, 성, 그리고 죽음의 표현에 관심을 기울였다. Oxford의 Keith Thomas, 프랑스의 Robert Mandrou는 대중문화에 있어서 마술과 마법의 역할을 다루었으며, Michel Foucault는 정신이상, Philippe Aries는 죽음에 대한 태도, Jean Delamean은 공포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38)

인간 심성에 대한 관심은 마르크스주의 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편협한 경제적 계급 결정론에서 벗어나, 문화적 요소들 역시 계급형성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경향은 계급결정론의 포기가 아니라 계급이 경제적으로만 결정된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이다. 새로운 계급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E. P. Thompson의 언급에서 잘 나타나 있다. Thompson에 따르면 계급은 ‘경제적 형성물인 동시에 문화적 형성물’이며, ‘인간에 의해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39) 이러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구소련에서가 아니라 영국에서 발전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이다.40)

비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은 역사가들의 연구영역을 훨씬 더 확장시켰다. 무엇보다도 80년대 유럽 역사서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주제.

37) G. Duby, *The Legend of Bouvines*, trans. C. Macrumi, Cambridge, 1990 ; E. Le Roy Ladurie, *Carnival*, trans. M. Fenney, London, 1980.

38) K. Thomas, *Religion and Decline of Magic: Studies in Popular Beliefs in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y England*, New York, 1971 ; Robert Mandrou, *Magistrates et sorciers en France au XVIIe siecle*, Paris, 1968 ; M. Foucault, *Madness and Unreason*, 1961.

39) E. 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1963.

40)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에 대해서는 Harvey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 Cambridge : Polity press, 1984, P. 40를 보라.

는 여성사이다. 전체사에 대한 강조는 모든 주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다. 80년대의 여성사는 6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문화의 독특성이나 남성과의 관계 - 아내, 어머니, 딸 - 에 주목하고 있다.⁴¹⁾

신사학의 변화 중 역사서술 방식과 관련한 변화는 - 이것은 연구주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 분석적 역사기술의 쇠퇴이다. 구조 분석적 역사기술은 역사의 역동적 운동을 감지하는 데 실패했으며, 계량적 방법은 수량화될 수 있는 주제와 사료만 채택케 함으로써 역사를 제한시켜 버렸다.⁴²⁾ 이러한 무미건조한 역사서술은 역사학을 사회과학화했음직는 몰라도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는 전혀 매력이 없는 것이었다. 난해한 통계표, 알 수 없는 전문 용어와 수학 공식으로는 대중은 물론이거니와 지식인의 관심을 끄는 데도 실패했다. 독자들, 심지어 동료역사가들에게조차 읽혀지지 않는 역사서란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계량적 방법이 진정한 과학적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결과에 대한 실망이다. 역사가가 컴퓨터로 사료를 분석할 때 거쳐야 하는 많은 과정에 하나의 착오라도 생기면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호설정, 프로그램 작성에 실수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사료의 신빙성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만 했다. 많은 계량화 방법으로 연구된 주제들에 있어서 역사가들의 결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완벽한 처리과정이란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계량화 방법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41) Burke, 'Overture', 1; Gertrude Himmelfarb, *The New History and the Old: Critical Essays and Reappraisals*, the Belknap press, 1987, p. 15 ; Joan Scott, 'Women's History' in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Writing*, Polity Press, 1991, ed., P. Burke, p. 43 ; Linda Kerber, 'Separate Spheres, Female Worlds, Woman's Place: The Rhetoric of Women's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5 : 1, 1988, pp. 9-39 ; Denis Riley, 'Am I that name?', *Feminism and the Category of 'Women' in History*, London, 1988.

42) Himmelfarb, p. 15.

은 사실이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투자한 노력에 비하면 그 성과는 미미한 것이며, 그들이 처음 내린 역사의 사회과학화는 하나의 이상이였다. 이들 방법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많은 역사적 논쟁들은 아직도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⁴³⁾

이러한 문제 인식은 신사학자들의 서술식 역사기술로의 복귀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술식 역사로의 복귀를 가장 강력히 종용한 것은 인류학적 주제에 대한 설명이 서술식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이다. 대표적인 아날학자들이 서술식 역사기술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Duby와 Le Roy Ladurie는, 구조와 국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단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날학자들이 다루는 사건들은 La Roy Ladurie의 말대로 ‘창조적 사건’(creative event)으로서 전통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시키는 사건들이며, 과거 사회의 문화와 내적 작용을 보여 주고 있는 것들이다.⁴⁴⁾

특히 인류학의 단일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한 부분이나 한 시각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탐조등식 방법’(searchlight method)은 역사기술, 특히 인류학적 주제에 대한 기술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⁴⁵⁾ 약 10년 전 인류학자 Clifford Geertz는 특별한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주체적인 묘사를 통해 낯선 문화를 해석하는 기술을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이라 불렀으며, 이를 발리섬의 닭싸움 묘사를 통해 보여 주었다.⁴⁶⁾ 이처럼 서술식 역사는 비록 전통사학과 근본적으로는 다를 지라도, 다시 주된 역사기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43) Stone, pp. 12-13.

44) E. Le Roy Ladurie, ‘Event and Long-Term in Social History’, in his *Territory* pp. 111-132.

45) Stone, p. 14.

46) C. Geertz, ‘Thick Description: Towards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and ‘Deep Play: Notes on the Balinese Cockfight’ in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1973.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분석적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Francois Lebrum의 저서 「17-18세기 양주의 사람들과 죽음」은 죽음에 대한 분석이자 인구적, 경제적 자료들의 계량적 분석으로 연구되었으며, Carlo Cipolla는 수천 개 유언장의 계량적 분석으로 집단 심성을 밝혀 보고자 했다.⁴⁷⁾ 이들이 이론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화적 주제는 서술식 시술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는 분석적 접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사와 인구사 분야에 서술식 방법이 도입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의 Cambridge Group의 연구나 Stone의 연구에서 계량적 방법과 서술식 방법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본보기이다.⁴⁸⁾

신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역사학이 사회과학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비록 우리가 인류학을 사회과학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해도,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인류학적 요소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경제학, 인구학과 같은 좀더 과학적인 사회과학에 비해서 인문과학에 더 가깝다. 더 이상 이런 사기들에게서 과학적 역사가 그들의 최대 과제라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역사가들이 사회과학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기계적·수학적 모델로부터 떠나왔다는 Iggers의 주장은 사회과학의 넓은 범주에 대한 이해의 부족처럼 보인다.⁴⁹⁾ 분명한 것은 역사가들은 기계적·수학적 사회과학으로부터 떠난 것이다.

IV. 신사학과 그 변화에 대한 비판.

신사학 특히 인구-경제적 결정론에서 떠난 신사학의 기여는 실로 엄

47) C. Cipolla, *Faith, Reason and the Plague in Seventeenth Century Tuscany*, Ithaca, 1979.

48) L.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49) Iggers, p. 183.

청난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 분명하다. 특히 신사학은 연구 영역에서 역사가들을 정치사·경제사·인구사·지성사·교 회사의 굴레에서 심성사·여성사의 영역으로, 국가사 중심의 역사에서 아 주 작은 마을이나 도시의 역사를 다루는 미시역사(microhistory)로 관심을 돌리게 했다. 이제 사회과학 대신 인류학이 역사학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남 게 된 것이다. 심성사에서 다루는 광범위한 주제들은 인류학의 주제와 차 이는 없으며, 하나의 작은 집단을 연구하는 인류학의 방법이 미시역사에 모델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역사학은 과거를 다루는 과거의 인류학이라는 것이다.

신사학에 대한 인류학의 기여는 이러한 주제의 영역뿐 아니라 역사기술 방법에서도 발견된다. 인류학의 심층기술은 서술식 역사의 새로운 기술방 식이 되었다. 이는 전통사학이 제공하지 못했던 시각이나 흥미를 부여하 고, 역사학을 대중과 호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심층기술이 앞으로 역사 학의 주된 기술방법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는 지성사, 정치사 등의 영역 에도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학은 정치사나 사상사와 같은 영역에는 무관심 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전체사'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다. 비록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대한 그들의 초점이 올바른 것이기는 하지만, 대중 이 엘리트들의 사상과 문화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었으며, 정치적 지도자들 의 강제하에 있었음을 자각하지 못했다.

신사학의 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사학이 종말을 고한 것은 아니 었다. 비록 신사학의 위세에 눌려서 제 목소리를 발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히 역사학자들의 세계에서, 특히 영국 역사학계에서 하나의 주류로 존재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은 영국혁명사에 관심을 두는 수정 주의자들과 정치사상사 중심의 캠브리지 학파로 대표될 수 있다. Conrad Russell과 John Morrill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들은 영국혁명의 원인론에 있어서 어떤 오래된 정치적, 종교적 원인을 거부하며, Charles I의 개성과

유발적인 동인에 더욱 관심을 부여하면서 깊이 있는 서술식 역사를 쓰고 있다.⁵⁰⁾ Stone이 전망했듯이 이러한 역사서술 태도는 역국혁명뿐 아니라 인접시기로 번져가고 있고, 영국에서 역사서술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⁵¹⁾ 또한 John Pocock, Quentin Skinner, John Dunn과 같은 정치사상사 중심의 Cambridge학파는 전통역사가들처럼 위대한 사상가에 몰두하고 있으나, 그 이전 정치사상사와는 달리 사상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그들이 사용한 언어에 깊은 관심을 두면서 정치사상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쓰고 있다.⁵²⁾ 또한 정치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주목해야 하겠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캠브리지대학의 흄정석좌교수(Regius Professor)였던 Sir John Seeley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 강좌가 새로 시작되었는데, 그에게는 “역사학은 과거의 정치학이며, 정치학은 현재의 역사학이었다.” 이 강좌를 준비한 책임자가 Skinner였다는 사실은 이 경향을 반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사학이 반 세기도 지나기 전에 그 한계에 봉착하고 만 것은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사학이 관념주의(idealism)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자유의지(free will)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역사서술에서 배제하였다면, 신사학은 실증주의(positivism)의 영향을 받아 그 반대로 나아갔다. 실증주의자들에게서 인간의 행위는 인과되어지는 것이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법칙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므로, 법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신사학자들이 수용한 전제는 이러한

50) 수정자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비판은 R. Cust and A. Hughes, 'Introduction: After Revisionism', *Conflict in Early Stuart England: Studies in Religion and Politics 1603-1642*, London : Longman, 1989, pp. 1-46.

51) Stone, pp. 20-21.

52) J. G. A. Pocock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Cambridge에서 Ph. D.를 받았으며, Skinner와 Dunn은 Cambridge에서 활동하고 있다.

실증주의이다. 인간은 자연세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는 주제이며, 역사학은 다른 사회과학의 원리에 의해서도 연구가능한 것이다. 사실이 논쟁은 신사학이 인정을 받기 시작할 무렵 영국 역사학계의 중요한 이슈였다. 가장 잘 알려진 두 역사가는 캠브리지대학의 Trevelyan 특강 내용을 ‘역사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출판한 E. H. Carr와 그를 반박한 E. R. Elton였다. Carr는 “사회사에 접근할 수록, 더 나은 역사적 사회학이 되며 이는 둘 다에게 유익하다.”(the more sociological history becomes, and the more historical sociology becomes, the better for both).⁵³⁾ 그러나 Elton에게 역사학과 사회학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분야였다.

“역사는 과거 사회적 관계들과 연관될 수 있고, 역사가는 사람의 머리를 세도록 제안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는 과거변화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관계해야 하며, 범주들뿐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과 연관되어야 하므로, 사회과학의 영향으로 연구된 역사는 전체의 작은 일부분 이상은 아니다.”⁵⁴⁾

일찍이 1938년 프랑스의 역사철학자 Raymond Aron이 주장했듯이, 이 오래된 근본적인 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두 학파를 화해시킬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 듯하다.⁵⁵⁾ 이 논점에 대한 성경적 시각 또한 양면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시편에서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볼 수 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⁵⁶⁾

53) E. H. Carr, *What is History?*, Harmondsworth, 1964, p. 66.

54) G. R. Elton, *The Practice of History*, Sydney, 1967, p. 28.

55) R. Aro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History*, p. 266.

56) 시편 8편

위 구절은 인간이 자연세계의 중요치 않은 일부분임을 보여 준다. 반면 이어지는 구절들은 인간의 위대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은 흠으로 만들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⁵⁷⁾ 가난 때문에 남의 집 담을 넘는 존재인 동시에, 행위의 보상으로 심판과 상을 받는 존재이다.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은 실증주의와 관념주의자들의 방법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일찍이 18세기 중엽 독일의 Johann Martin Chladenius가 주장했듯이 인간은 인간 법칙에 의해 행동이 제약되기도 하고, 인간법칙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는 1556년 독일과 스페인의 왕이었던 Charles V가 왕위를 은퇴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우리는 Charles V가 수행한 몇몇 정책의 결과가 나빠서 은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행동의 적절한 일반화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칙’은 왜 그가 왕위를 포기했는지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남겨진 원인은 개인적 심성에서 찾아야 한다.”⁵⁹⁾ 역사가는 법칙같은 일반화(law-like - generalizations)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반면, 자유로운 인간 행동의 독특함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⁶⁰⁾ 실증주의자나 관념주의자는 그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을 수 있지만, 그들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기독교적 시각은 이 논쟁에 한 해결

57) 창 2:7, 1:26.

58) 잠 30:8; 답후 4:8.

59) J. M. Chladenius, *General Science of History*, Leipzig, 1752, p. 223; Bebbinton, p. 163.

60) Bebbington, pp. 163-164.

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 내에 문제 해결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⁶¹⁾

이러한 기독교적 접근은 역사가가 도덕적 편견을 내리는 데도 응용될 수 있다. 기독교 사상가들 사이에 역사가가 과거의 인간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액톤 경에 의하면 역사가는 역사적 블랙리스트(historical blacklist)를 만들어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 액톤에게 있어서 인간은 조건화되지 않은 존재이므로,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⁶²⁾ 히틀러가 역사가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쉰들러(Schindler)는 칭송을 받아야 한다.⁶³⁾ 그러나 액톤의 견해에 반대해 Butterfield는 역사가는 그리스도인의 자비심을 배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자신을 조사한 후에 나 자신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우, 그들의 조건에 대해 내게 어떠한 자유가 허락되었는지 결코 알 수 없다.”⁶⁴⁾

이 두 경우 모두 크리스찬 역사가에게 수용될 만하다. 인간은 책임을 수반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인 동시에, 자연과 주위의 인간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크리스찬 역사가는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인간을 과거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기술해야 한다.

61) Ibid, p. 167.

62) Acton, *Lectures on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1910, p. 92.

63) Schindler는 나치의 유대인 박해기간 동안 약 천 명 이상의 유대인을 구한 인물로 최근 Thomas Keneally에 의해 소설화되고, Steven Spielberg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T. Keneally, *Schindler's Ark*, 1982.

64) Butterfield, *Christianity and History*, London, 1950, p. 45.

최근의 역사학 서술이 사회과학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 Eric Hobsbawm 이 말한 것처럼 인류학적 주제를 취급하는 역사학과 사회-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역사학의 상호 보완이라면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⁶⁵⁾ 그러나 하나의 유행처럼 이러한 경향이 실증주의적 태도에 대한 반동의 결과로서 관념주의로 돌아선 것이라면 악순환의 연속 이상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세기 전반의 역사주의의 이상인 객관적 역사, 과학적 역사라는 것이 편견을 가지는 인간인 역사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역사주의 추종자들은 역사가가 자신이 속한 시대와 공간의 영향 아래에서 편견을 갖고 있으나, 역사기술에서 가능한 제외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신사학은 역사주의가 이루지 못한 과학적 역사를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였다. 역사가가 자신의 편견을 역사서술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계량적 분석을 채택한다면 과학적 역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신사학의 접근 역시 사료의 신빙성 문제와 복잡한 처리과정의 문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더 이상 과학적, 객관적 역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은 듯하다. 더 나아가 과학적 역사에 대한 의미마저 상실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여기서 더욱 큰 역사학의 위기를 볼 수 있다. 1980년대 심각하게 나타난 역사학의 상대주의화는 20세기 후반을 풍미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원은 20세기의 문학적, 철학적 전위주의자들 즉 modernists에 있다.⁶⁶⁾ 우리는 여기서 산업화를 의미하는 용어로서의 modernism과, postmodernism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modernism의 구별을

65) E. Hobsbawm, 'The Revival of Narrative. Some Comments', *Past and Present* 86, 1980, pp. 6-7.

66)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1984, xvi.

분명히 해야 한다. 문화적 modernism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위기 속에서 나타났으며 니체(Nietzsche)와 프로이트(Freud)로부터 그 빛을 지고 있다. 니체에 의하면 신은 죽었고, 신이 없는 세계에서는 형이상학이나 우주의 질서란 없으며, 물체와 그 이름 사이의 관련도 없는 것이다.⁶⁷⁾ 이런 modernism은 예술에 있어서 후기인상파, 음악에 있어서 무조(無調)주의자, 그리고 소설에 있어서 수많은 의식적 작가를 탄생시켰으며, 인간 창조성에 관한 대부분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⁶⁸⁾

특히 지난 10년 간 포스트모더니즘은 널리 퍼졌으며, 역사학의 분야도 예외없이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신사학은 어떤 역사학의 기준도 거부하는 상대주의(relativism)로 들어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성사에 대한 대표적인 역사가 Michel Foucault(1928 - 84)의 두 작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정신 이상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정신이상과 부조리」(1961)와 상업, 언어, 동물들의 인식방법에 대한 연구 「질서」(1966)에서 니체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⁶⁹⁾ 특히 「질서」에서 그는 니체를 찬양하고 있다. 또 니체의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작품은 Hayden White의 「Metahistory」이다.⁷⁰⁾ 그는 역사가 철학과 같은 문학이라고 주장하며, 역사에 대한 두 시각 사이에 두 열이 있음을 거부한다. 상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대립되는 설명들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없는 것이다. 실체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다른 해석보다 선호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더욱 확산될 전망으로 보이며, 이것이 앞으로 역사학에 끼칠 악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역사가들이 다루지 못하는 주제란 없다. 인간의 심성에 관한 영역뿐 아니라 냄새, 청결, 제스처, 인간의 육체(body), 위기, 말하기 심지어 침

67) Bebbington, p. 191.

68) Ibid, p. 191; *Modernism, 1890-1930*, ed. Malcolm Bradbury and James McFarlane, Middlesex : Harmondsworth, 1969, passim.

69) Bebbington, p. 192.

70) Ibid, p. 193.

목에 이르기까지 역사가의 주제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⁷¹⁾ 국가적 차원의 역사를 대신하여 지방이나 조그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역사학(microhistory)도 새로운 연구 영역이다. 이제 영국의 국민학생들은 읽는 역사와 함께 듣는 역사도 배운다.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노인이 어린아이들을 앞에 두고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얘기하는 것은 구전역사(oral history)로서 새로운 역사교육 방법이 되어 가고 있다.⁷²⁾ 이는 역사가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문호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전체사에 대한 주장으로 모든 것이 역사가의 주제가 되는 동시에, 그 주제들 사이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또한 역사에 있어서 중심과 외곽의 구분도 불가능하다.⁷³⁾ 이러한 상대주의가 가져온 결과는 한마디로 혼란뿐이다. Herodotus로부터 1960년까지의 총 역사가의 수보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역사가의 수가 더 많다는 F. R. Ankersmit의 추측은 그리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사가들의 제한 없는 주제 선택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역사서들은 실로 엄청난 것이며, 이제 역사가들 사이에도 대화는 점점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⁷⁴⁾

Bebbington이 주장하듯 그리스도인 역사가의 큰 사명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역사 해석을 바로 잡는 것이다.⁷⁵⁾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에서 보면 이 세상은 혼란의 장소이며,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판단 기준이란 없다. 따라

71) A. Corbin, *The Foul and the Fragrant*, Leamington, 1986 ; G. Vigarello, *Concepts of Cleanliness*, Cambridge, 1988 ; J - C. Schmitt, ed., *Gestures*, 1984 ; R. Bauman, *Let Your Words be Few*, Cambridge, 1984.

72) Giovanni Levi, 'On Microhistory' in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Writing*, Cambridge : Polity Press, 1991, pp. 93 - 113. ; Paul Thompson, *The Voice of Past : Oral History*, Oxford, 1978.

73) Burke, 'Overture', pp. 3-4.

74) F. R. Ankersmit, 'History and Postmodernism', *History and Theory*, vol. 28, 1989, pp. 137-153.

75) Bebbington, p. 194.

서 진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역사가 역시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한다. 그러나 진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또 한 사람이 가진 편견이 진리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역사가의 편견이 실은 위대한 역사 저술들을 탄생케 한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편견은 역사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역사가의 성장배경은 어떤 주제들에 있어서 그에게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편견은 하나의 자산이다.⁷⁶⁾ 역사가의 주관성과 과거라는 객관성은 서로 역사서술에서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시각의 역사가 역사적 진실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역사적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진리의 한 측면을 한 시각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관점론(perspectivism)이라 부른다.⁷⁷⁾ 이것은 어떤 것도 다른 것에 대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오직 상대성만 존재한다는 견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역사가들이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쓴다는 사실이 그들의 역사가 다른 시각에 의해 비판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부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즉 역사철학(philosophy of history)보다는 어떻게 역사를 서술할 것인가의 문제인즉 역사서술(historiography)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서술이란 불가피하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0세기 후반의 역사학의 변천은 역사관에 대한 변화에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사학의 발전과 변화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독교적 역사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바로 비판할 수 없다. 신사학은 구사학의 여러 부족 점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한 극단에 대한 다른 극단의 반동일 뿐,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또한 신사학

76) Ibid., p. 9.

77) Ibid., p. 164.

은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그 중심을 잃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본고는 기독교 접근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 것이다.